

기독교철학의 정점: 신앙과 이성의 조화

김 종 결
<종교철학 교수>
jkkim@kbtus.ac.kr

I. 들어가는 글

성경에서 신앙과 이성의 관계가 문제시 되는 부분은 사도행전에 잘 드러나 있다. 바울이 아테네 전도하러갔을 때 바울이 아테네에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만나 최초로 쟁론하는 장면이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행 17:16-8)

그러나 바울의 초점은 선교였고, 철학자들의 초점은 학문적 토론에 두

있기에 이 둘은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는 입장을 보였다. 즉 바울과 철학자, 신앙과 이성의 긴장관계는 서로에게 그리 성공적이지는 않았다. 바울의 여정을 드러다 보면 초기 철학이 추구하는 이성의 절대성으로 기독교 신앙이 변질되고 이단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우려로 철학에 대한 경계를 보이기도 한다. 이는 골로새서에 잘 드러나 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골 2:8).

그러나 이러한 바울의 태도가 철학 자체를 비신앙적인 것으로 배격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바울의 전도여정을 살펴보면 자신이 지닌 학문적 지식과 배경을 충분히 활용하여 그리스도와 부활을 전파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특히 이교생활의 전형적 대표도시인 고린도에 교회가 설립된 것은 매우 위대한 공적이다. 바울은 고린도에 의로운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많음을 보증하는 환상을 받았으며, 그래서 그는 동서양이 만나는 이 전략적 요충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일 년 육 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행 18:9-11). 그리고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더돌로의 고발에 대해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행 24:14-5).

신앙과 이성에 대한 연구를 촉발한 계기는 기독교와 그리스 철학과의

만남이었다. 초기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이성의 산물인 철학과의 조우는 서로간의 긴장관계를 형성하였고, 신앙과 이성의 관계는 주요 이슈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신앙과 이성의 긴장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통하여 영원한 진리에 다가가고자 노력했다. 이재룡은 기독교철학의 독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기독교철학의 독특성은 세계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려는 그리스 철학과 철학적 함의들을 담고 있는 기독교의 계시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생겨났다. 특히 교부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기 위한 수단으로 플라톤 경향의 철학을 수단으로 삼았다.”¹⁾ 그렇다면 계시로부터 받은 관념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에 교부들은 관념들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철학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신학자들은 신앙과 이성의 관계에 대해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해왔다. 특별히 아우구스티누스(Aurelius Augustinus, 354-430), 안셀무스(Anselmus Cantuariensis, 1033-1109),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4-1274), 보나벤투라(Sanctus Bonaventura, 1221-1274) 등은 신앙과 이성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조명한 대표적인 신학자들이다.²⁾ 중세 이

1) 이재룡, “회칙 신앙과 이성의 역사적 의미,” 『가톨릭철학』 2 (2000): 20.

2) 스콜라 철학에서도 ‘신앙과 이성의 조화’는 강조되어 왔다. 스콜라 철학의 아버지 칸터베리 대주교 안셀무스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모든 지식을 이성적, 체계적으로 정리해 세상으로 하여금 분명한 진리의 체계 속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다. 기독교는 서유럽이 외세의 침공으로부터 벗어난 11세기에 유럽 전역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동시에 교권과 왕권의 대립, 기독교와 이교도의 마찰 등은 당시 유럽 사회를 괴롭히는 최고의 악이었다. 이때 타종교와의 관계 속에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위해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게 됐다. 스콜라 철학은 이러한 신앙적 요청을 잘 규명해 보려는 시각에서 시작됐다. 스콜라 학파의 목표는 기독교의 신학 체계를 철저한 논리와 이성을 기초로 정립하는 일이었다. 중세의 가장 탁월한 신학자이자 사상가인 보나벤투라는 토마스 아퀴나스와 동시대 인물로서 신학뿐 아니라 신비주의 학자로서 큰 업적을 남겼다. 그의 신학은 스콜라 철학자답게 이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철저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기초하여 새로운 신학을 전개한 반면, 보나벤투라는 보수적 관점에서 신학을

후 인간 이성의 합리성과 충족성을 전면에 드러낸 모더니즘은 지나친 이성중심과 과학주의로 이성의 절대성을 내세우며 초월적 진리를 거부하려고 했고, 이에 합리적 이성을 축소하고 신앙주의로 돌아가려는 양 극단의 병폐는 항상 많은 논란을 가져왔다.³⁾

그러기에 신앙과 이성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항상 진행되어온 거대담론이며 매우 까다로운 문제이다. 이성은 학문 일반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의 능력이고, 신앙은 이성을 넘어선 초월적인 계시를 받아들이는 인간에게 허용된 초자연적 능력이다. 신앙과 이성 사이의 관계는 그 경계선을 구분 짓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성을 초월한 계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알기 위해 믿는 것인가 아니면 믿기 위해 아는 것인가? 신앙은 이성을 거부하는가? 아니면 신앙과 이성은 조화를 이루어 진리를 확고히 하게 하는가? 기독교신학은 신앙의 진리에 대한 이성적 사유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신앙에 대한 이성적 사유가 대두된 것은 무엇보다도 타문화 속에 드러난 자신을 이제는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생겨났다는 사실이다. 타종교를 대하는 기독교의 태도는 과연 어떤 것일까? 자신의 종교에 충실하면서도 다른 종교를 존중해주는 것은 가능한 일일까? 문제는 기독교는 초대교회부터 타종교를 경험해왔으며, 그런 역사적 경험을 통해 타종교에 대한 다양한 태도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기독교에 대한 이해는 다종교 사회에서 다른 종교를 대하는 최선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전개했다.

- 3) 신앙주의는 신학 신조를 궁극적 진리 기준으로 삼고 이성이 종교적 진리를 파악하는 능력을 극소화시킴으로써 신앙을 최우선으로 삼는 철학적 견해이다. 즉 종교적 진리는 이성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만 파악된다는 입장이다. 엄격한 신앙주의자들은 이성이 종교의 근본적인 교의를 이해하거나 발견할 여지를 주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맹목적 신앙이 확신과 구원에 이르는 최상의 길이다. 그들은 신비로운 경험, 계시, 주관적인 인간 욕구, 상식 등 다양한 근거에서 이러한 신앙을 옹호한다.

중세는 신학이 모든 학문의 여왕이었던 시대이다. 철저히 신중심적인 사고가 지배적인 시대였다. 이제 중세를 지나 ‘과학’이라는 이름의 이성이 시대의 지배자로 등극한 21세기에 과연 신앙은 이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성은 신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신앙과 이성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반목하면서도 공존할 수밖에 없다. 이천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탄생한 기독교가 그리스 철학을 받아들이고 헬레니즘 문화를 수용하며 세계의 종교로 변신하는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 신앙과 이성의 문제를 새롭게 정립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진리를 향해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과연 이성만일까?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신앙뿐일까? 여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대답이 필요한 시점이다.

연구자는 우선 2장에서 신앙과 이성의 대립을 살펴보고자 한다. 신앙과 이성의 대립은 중세에 걸쳐 명맥을 유지해 온 신앙주의(fideism)와 이성주의(rationalism)를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신앙과 이성의 조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신앙과 이성의 조화는 기독교철학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그 중에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는 어떻게 전개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⁴⁾ 인간 이성의 추론 작업은 신에 대한 신앙에 이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신에 대한 신앙의 근거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임을 볼 것이다. 4장에서는 신앙과 이성에 대한 전망을 살펴봄으로써 신앙과 이성의 긴장과 조화로운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신앙을 발견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4)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로마의 고전 문화와 만남을 통해 중세 초기에 라틴 기독교의 토대를 세운 인물이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의 절정기에 중세 스킨라 사상을 완성한 인물이다.

II. 신앙과 이성의 대립

신앙과 이성과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교부시대이다.⁵⁾ 초기 기독교에 복음이 확장되면서 교회 안에 희랍철학의 배경을 지닌 신자들이 생겨나면서 교회는 이들에게 신앙과 이성 간의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생겨났다. 희랍철학의 도전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 불신을 가져오게 했고, 여기에 대한 교회의 변증적인 입장조차 통일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반대의 입장인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신앙과 이성의 대립은 주로 흑백논리에서 비롯된다. 여기에는 중세에 걸쳐 명맥을 유지해 온 신앙주의와 이성주의를 들 수 있다. 신앙주의는 이성적 인식을 부정하거나 이성적 인식이 신앙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반면에 이성주의는 신앙에 근거한 모든 인식이 전혀 무모한 것으로 본다. 신앙주의와 이성주의의 갈등과 극단적인 입장은 가볍고 단순한 것들이 아니었다. 이들이 주장하는 명제는 인식론, 구원론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면서 중세 대학에서 토론을 활성화시키는 촉진제가 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신앙과 이성의 양 극단에서 있는 신앙주의와 이성주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5) 교부(敎父)란 사도들을 이어 그리스도교를 전파하며 신학의 기본적인 틀을 형성한 교회의 지도자들을 일컫는다. 교부는 2세기 이후부터 기독교 신학의 주춧돌을 놓은 이들을 말하며, 교부란 호칭은 후대 교회에서 붙인 경칭이다. 교부는 2세기에서 8세기에 걸쳐 그리스도교의 이론을 세우고, 이단과의 열띤 논쟁을 벌이면서 사도로부터 계승된 거룩한 보편교회를 수호하는 데 기여했다. 니케아 공의회 이전의 교부들로는 오리게네스(Origenes, 185-254 경),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 150-215 경), 예루살렘의 키릴로스(Saint Cyril of Jerusalem, 313-386 경) 그리고 북아프리카 출신의 터툴리아누스(Quintus Septimius Florens Tertullianus, 150-225 경), 로마교구의 히에로니무스(Eusebius Hieronymus, 345-420 경), 아우구스티누스 등이 있다.

1. 신앙주의

연구자는 여기서 신앙주의를 표방하는 교부신학자 터툴리아누스와 19세기 사상가인 쇠렌 키르케고어(Søren Kierkegaard 1813-1855)의 사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라틴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터툴리아누스는 철저히 이성의 산물인 철학을 배격하고 신앙을 우선시 하는 신앙주의를 주장한다.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철학자와 기독교인이 무슨 공통점이 있느냐는 말은 이러한 그의 입장을 함축적으로 매우 잘 표현하는 말이다. 터툴리아누스와 동시대 인물인 클레멘트는 기독교를 최고의 철학으로 보았고, 이성과 신앙을 통일적 관점에서 조화시키고자 노력했다. 신앙과 이성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고 양자는 서로 떨어져서는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본다.⁶⁾ 이런 점에서 클레멘트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전까지 희랍사람들은 철학을 통해 의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다. 이는 철학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전제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클레멘트의 이런 입장에 대해 터툴리아누스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신앙의 우선성을 내세웠다.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질문은 이를 대변하는 것이다. 기독교와 헬레니즘의 사상의 관계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스토아철학을 배척했다.⁷⁾ 철학을 기독교 신앙에 수용할 수 있지만, 계시의 초월성과 유일성이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터툴리아누스는 역설(paradox) 개념을 신학에 도입하여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라는 명제를 내세웠다. 이에 오창희는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 “예수는 단순한 마음으로

6) 최현근, 「신앙과 이성」 (서울: 쿰란출판사, 2007), 135.

7) 신재식, 「신앙과 이성 사이에서 아우구스티누스 & 아퀴나스」 (서울: 김영사, 2017), 45.

찾아야 가능하고, 그리스도 이후에는 사변이 필요 없다는 다소 강한 입장을 피력했다.”⁸⁾ 이 말은 신앙과 이성, 종교와 철학을 완전히 떼어놓는 것이고, 대립적인 걸로 보는 것이다. 불가능하다는 건 이성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이고, 불합리하다는 건 이성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실하고 종교적으로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의 입장은 신앙과 이성을 서로 대립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입장은 신앙의 초월적 측면을 잘 드러내고는 있으나 너무 극단적이어서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철학이나 문화 활동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했다는 사실이다.

덴마크가 낳은 가장 독창적인 사상가인 동시에 19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로 알려진 키르케고어 역시 신앙적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성적 사유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한다.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아케다(Aceda) 사건은 이성으로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데 이런 명령을 따르는 것이 과연 옳은가?⁹⁾ 아브라함에게 무조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과연 인간 이성의 윤리적 원리에 부합하는 것인가?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목숨을 바치라는 이 명령은 당사자인 이삭에게 잘못도 없는 상황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으로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대가로 자기 목숨을 내 놓아야 하지만, 이삭에게는 그런 잘못이 없고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이 문제에 대해 키르케고어는 인간 이성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결단만이 대응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기에 신앙은 이성의 합리적인 차원을 넘어선 비합리적인 모순의 차원이라고 설

8) 오창희, “신앙과 이성,” 「신학지평」 5집 (1997): 45.

9) 아케다(Aceda)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결박하다’는 히브리어의 명사형이다. 이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줄 뉘는 데서 온 말이다.

명한다.

키르케고어는 헤겔 철학에 대한 비판을 사상의 출발점으로 삼았으며 이를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실존’ 개념을 사용했다. 헤겔은 존재라는 말을 사유와 같이 보편적이고 관념적인 것으로 이해했던 반면, 키르케고어는 존재를 이 세계에 실제로 생존하고 있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존재로 이해했다. 그에게 있어서 진실한 인간 존재, 즉 실존은 하나님 앞에 서는 단독자(單獨者)였다. 이 단독자는 그의 사상의 중심 개념이었다. 키르케고어는 인간 실존의 단계를 세 단계로 구분한다. 첫째, 심미적 단계-미적 실존이다. 이 단계는 천박한 쾌락주의자의 특징을 드러낸다. 이 단계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은 전적으로 가시적이고 세속적이며, 일시적인 목표들만을 추구하고 동시에 인생을 미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것은 감각적인 직접성의 영역이다. 심미적 인간은 윤리적인 결단, 즉 선택에는 익숙하지 못하다. 더욱이 이 단계에 있는 인간은 인생의 외적이고 한정적인 요소들에 제한되어 있으므로, 그에게는 영원한 것을 일시적인 것과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특징인 시간과 영원의 종합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없다. 또한, 객관적 사고에 의하여 자신이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부터 도피하는 사색적인 유형의 사람 역시 심미적 단계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심미적 단계의 생활은 절망, 불안에 대한 승산 없는 싸움이다. 둘째, 윤리적 단계-윤리적 실존이다. 인간이 선과 악 사이에서 어느 쪽인가를 선택 하라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강요에 직면했을 때 인간은 절대자와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서 존재하기 시작한다. 자신의 소중한 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합리적인 것에 반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요구에 겸손하게 순종했다. 그러나 윤리적 요구는 인간으로 하여금 선택이라는 영원한 중압감에서 비롯된 진지함을 가지고 자

기 인생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끔 한다. 이것은 이어서 인간의 내부에 후회 혹은 회개의 상태를 유도해 내는바, 이는 그가 윤리의 끝없는 요구들을 완전하게 충족시킬 수 없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윤리적 결단 아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어 종교적 단계로 이어진다. 윤리적 단계는 인간에게 양자택일을 맞게 하는, 양심에 대한 절대적인 요구로 이루어져 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도 있고 놓쳐버릴 수도 있다. 셋째, 종교적 단계-종교적 실존이다. 종교적인 사람은 인간의 착한 마음에 한계가 있음을 알고 결국 인간이 절망에 둘러싸여 있음을 절실히 느끼면서도 새로운 형태의 생활어로 결단하여 비약하는 사람이다. 종교적 실존의 초점은 고난이다. 종교적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절망을 거쳐야 한다. 신앙과 함께 형성되는 종교적인 실존은 절망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면서도 또한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다.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신앙이 일어날 수 있다. 여기서 그는 '역설'(paradox)의 개념을 도입했다. 미적 실존이나 윤리적 실존의 단계는 인간 스스로 도달할 수 있으나 종교적 실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¹⁰⁾ 키르케고어는 신앙적 단계가 가장 높은 차원의 실존의 경지임을 말하고, 이런 신앙의 차원에서 인간이 가장 실존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¹¹⁾

10) 임병덕,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의 개념,” 『도덕교육연구』 9 (1997): 130-7.

11) 키르케고어가 말한 실존의 의미는 그의 저작 「양자택일」(Either-Or, 1843) 및 「생의 여로의 단계」(Stages on Life's Way, 1845)와 같은 저서를 통하여 설명한 내용 가운데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키르케고어가 표현한 종교적 단계는 도덕의 부정이나 이성의 부정이라기보다는 절대자 앞에 나체로 서있는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이다. 한국키에르케고어학회 편, 「키에르케고어에게 배운다」(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5), 186.

2. 이성주의(rationalism)

이성주의는 신앙과 이성간의 확고하고도 명확한 분리를 주장한다. 합리적인 논변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신앙이 끼어들 수 없으며, 이성만으로 우리가 사는 세계에 관한 지식에 도달 가능하다. 즉 이성주의는 신적 계시의 도움 없이도 이성을 통해 모든 종교적 진리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¹²⁾ 이성주의는 신앙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신앙과 이성의 연관성을 주장해 온 교회 안의 사상가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¹³⁾ 이성주의에 대한 교회의 응답은 복잡하며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오창희는 이성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나온 신앙과 이성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신앙을 최소한으로 인정하면서 이성을 극대화하여 설명하려는 입장이다. 즉 이성의 한계 내에서 종교를 인정하는 입장이다. 둘째, 신앙을 완전히 제거하고 이성만으로 대처하여 설명하는 입장이다.”¹⁴⁾

이성의 한계 내에서 종교를 인정하는 입장도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 중 대표적인 학자인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는 신앙을 이성에 종속시켜 이성의 틀 안에서만 존재 가능한 것으로 파악했다. 칸트는 인간의 순수이성의 한계라는 점에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가능한 방법은 도덕적 증명이라고 보았다. 물 자체(Ding an sich)와 현상(Phenomenon)이라는 이원론적 관점에서 볼 때, 현상이라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실천이성비판이다. 신은 결코 증명(prove)될 수는 없지만 신은 우리들의 실천과 삶을 위해서 요청(postulate)된다. 칸트는 종교는 도덕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하나님은 도덕적 근거로서 요청된 존재라고 주장한다.

12) 최현근, 「신앙과 이성」, 129.

13) Jack A. Bonsor, 「이성과 신앙」, 이태하 옮김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9), 24-5.

14) 오창희, “신앙과 이성,” 48.

칸트에 의하면 신의 존재는 실천이성의 요청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칸트는 도덕적인 의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도덕성의 완성과 더불어 그에 상응하는 행복을 얻는 것인데 이와 같은 도덕성의 종합을 칸트는 ‘최고선’이라고 칭하고 있다. 실천이성은 최고선을 끊임없이 구하는데 최고는 최상과 완전을 의미한다. 칸트에 따르면 최고선은 인간 자신의 힘으로 성취될 수 없다. 그렇다면 최고선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칸트는 인간의 도덕적 의지가 지향하는 대상인 최고선이 실현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가능 근거로서의 영혼불멸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아울러 최고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신의 존재’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칸트는 인간의 도덕적 의지가 지향하는 최고선의 실현가능 조건으로서 두 가지 요청을 제시한다. 하나는 도덕성의 완성을 위한 조건으로서 인간 영혼의 불멸이다. 또 다른 하나는 그렇게 완성된 도덕성에 상응하는 복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서 신의 존재이다.¹⁵⁾ 칸트는 이성의 능력을 경험현상계로 한정하고 형이상학과 신앙의 세계를 인간 이성의 영역 밖으로 완전히 추방시켰다. 종교는 이성이성의 영역에서 다루어질 수 없는 도덕적 차원인 실천이성의 영역에서만 다루어 질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1793)라는 저서는 칸트의 이러한 입장을 잘 표현하고 있는 저서이다.

신앙을 완전히 제거하고 이성만으로 대처하여 설명하는 입장은 자연주의(naturalism)에서 나타난다. 자연주의는 신앙을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시도조차 거부하고 신앙에 대한 논의도 거부하는 극단적인 형태이다. 즉, 신을 떠나 신앙의 영역을 거부하는 입장이 자연주의이다.¹⁶⁾ 자연주의는 자연적 존재의 세계를 넘어서는 어떤 실재도 없다고 보며, 세계의 모든

15) 최현근, 「신앙과 이성」, 316-7.

16) 길희성, 「신앙과 이성 사이에서」 (서울: 세창출판사, 2016), 338.

현상은 초월적 존재 없이도 자연적인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 베일러 대학교의 석좌교수인 스티븐 에반스(Stephen Evans)와 사우스 웨스트 침례대학교의 철학교수인 잭커리 매니스(Zachary Manis)는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 “자연주의는 초자연적인 실재가 존재하지 않으며 천사나 불멸적 영혼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¹⁷⁾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과학적 방법이고 그러기에 초월적인 방법은 거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연주의는 이성의 자율성과 자기 충족성을 믿는 이성 중심적 사고의 완성된 형태이다. 그러므로 자연주의는 도덕적인 삶이나 종교적인 삶을 포함하는 모든 인간 경험을 물질적인 환경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지성을 가진 동물로서의 인간 생존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신념이다.

지금까지 신앙과 이성의 양 극단에 서 있는 신앙주의와 과 이성주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신앙과 이성의 조화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III. 신앙과 이성의 균형

종교적 신앙과 이성적 인식의 문제는 기독교철학의 중심과제일 뿐 만 아니라 조직신학, 변증학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문제이다.¹⁸⁾ 이 문제로 인한 질문은 다양하다. 예를 들면 믿음이 먼저인가? 아니면 앎이 먼저인가? 신앙이 이성에 의존하는가? 아니면 이성이 신앙에 의존하는가? 이성은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이성과 신앙의 이상적인 관계는 무엇인가? 연구자는 여기서 신앙과 이성의 조화에

17) 스티븐 에반스, 잭커리 매니스, 「종교철학」, 정승태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6), 203.

18) 강학순, “신앙과 이성,” 「신학지평」 12집 (2000): 134.

대한 관점을 가지고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합리주의와 계몽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이 스스로의 이성을 자각하기 이전 이전 년 가까운 서양의 역사를 지탱한 것은 바로 기독교였다.¹⁹⁾ 과학과 이성이 그 자리를 대체한 것은 고작 300년 남짓이다. 그 기간 동안 눈부시게 발달한 과학과 인간 이성에 대한 자각은 어느덧 종교와 신앙을 낳고 구태의연한 것으로 치부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종교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과학이라는 이름의 이성과 계시라는 종교가 어색하지만 여전히 공존하고 있고, 그로 인해 예기치 않은 갈등이 벌어지는 사회, 그것이 바로 오늘의 현대 사회이다. 그렇다면 과학의 시대를 살며 이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사유하고 주체적으로 행동한다고 자부하는 현대인들에게 초월자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는 신앙이란 시대착오적인 믿음에 불과한 것일까? 신앙을 목숨처럼 떠받드는 이들에게 이성은 편협한 잣대일 뿐일까? 신앙과 이성은 물과 기름처럼 절대로 섞일 수 없는 가치인 것일까? 하지만 오늘의 현대사회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역사 속에는 분명 신앙과 이성이 함께 공존했던 시기가 있었다. 그 시기에 인간은 신앙과 이성이라는 두 개의 날개로 진리를 추구하기 위한 날개 짓을 했다는 사실이다. 그 날개 짓의 시작이 바로 중세신학의 문을 연 아우구스티누스였고, 그의 신학을 바탕으로 더 높이 도읍단기를 시도한 이가 바로 아퀴나스이다. 과학을 중심에 둔 사고체계에 익숙한 우리에게 이들의 중세적 사고방식은 낯설고 어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신앙을 뒤로한 채 과학만이 저만치 앞으로 달려 나가는 현대사회가 성숙한 사회일까? 그렇지 않다. 신앙과 이성, 이 두 날개가 제대로 균형을 잡으며 날개 짓할 때 비로소 진정한 진리에 다가갈 수 있다고 본다.

19) 종교개혁 이후 16-17세기 내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종교전쟁과 대대적인 전염병 등은 종교 자체에 대한 관심을 저하시켰고, 기성 종교가 채워주지 못한 정서적 빈 공간을 건드린 것이 과학혁명을 기초로 한 합리주의와 계몽주의였다.

신앙과 이성의 조화는 기독교철학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그 방식은 ‘신앙과 이성의 분리’에 의한 조화, ‘신앙과 이성의 합일’에 의한 조화 그리고 ‘신앙과 이성의 구분’에 의한 조화이다. ‘신앙과 이성의 분리’에 의한 조화는 한마디로 신앙과 이성이 상호 무관하다는 의미이다. ‘신앙과 이성의 분리’에 의한 조화는 14세기의 가장 두드러진 철학자 중 하나인 윌리엄 옥캄(William of Ockham, 1287-1347)에서 비롯되어 근대로 넘어오면서 계몽철학의 선구자인 칸트가 신앙과 이성의 분리를 극대화 시켰으며,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슈라이어마허(Friedrich Schleiermacher, 1768-1834)가 해석학을 통해 구체화시키게 된다.²⁰⁾ ‘신앙과 이성의 합일’에 의한 조화는 신학과 철학의 대상을 동일하게 보는 것으로부터 초래된다. ‘신앙과 이성의 합일’에 의한 조화를 처음 주장한 철학자는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철학자 필로(Philo, B.C 25-A.D 45 경)이다. 필로는 그리스 철학과 유대신앙을 결합하려는 시도를 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철학적 여정을 거쳐 기독교 신앙에 입문했기에 신앙과 이성을 동일시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철학을 추구하는 과정에 신앙을 고백한 것이다. 이러한 성향은 안셀무스의 ‘나는 알기위해서 믿는다’는 표현을 통해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신앙과 이성의 구분’에 의한 조화는 아퀴나스가 추구한다. 신앙의 원천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한 그는 신앙은 이성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한편 이성은 명백한 것에 동의하므로 그 자체로는 신앙과 무관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성이 초월하는 신앙에 동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였다.²¹⁾

신앙과 이성에는 상관성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 중에

20) 신창석,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앙과 이성,” 『가톨릭철학』 2 (2000): 56.

21) Ibid., 66-71.

‘신앙과 이성의 합일’에 의한 조화를 전개한 아우구스티누스와 ‘신앙과 이성의 구분’에 의한 조화를 표명한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떻게 전개하였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1. 아우구스티누스

신앙우선주의가 지닌 극단적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신앙과 이성에 대해 종합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이다. 그는 기독교 신앙과 그리스 철학을 서로 연결시켜 자신만의 독특한 사유의 틀을 확립한 사람이다.²²⁾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빌리자면 신앙은 이해로 가는 첫 단계이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선 신앙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신의 진리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기에 그는 기독교 신앙의 신뢰성은 창조주의 선하심에 달려 있다고 본다.²³⁾ 신앙은 지식을 전수하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의 계시에 대한 신앙이 인간 이성에 앞선다고 믿었다. 반면 그는 자신이 믿으려고 하는 바의 정체에 대해 알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믿음은 이성을 통해 이해되고 설명되지 않으면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이성은 믿음을 통하여 모든 허무로부터 정화된 이성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⁴⁾ 그는 건전한 이성에 의해 믿음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계시를 믿는다고 하여, 권위는 믿음을 요구하며 인간에게 이성을 예비하도록 한다고 피력한다. 이성 없는 신앙은 맹목적 일 수 있고, 신앙 없는 이성은 진리로 나갈 수 없다. 그러므로 신앙으로 먼저 받아들이고 나면 완전한 이해에 도달할 수

22) 신재식, 「신앙과 이성 사이에서 아우구스티누스 & 아퀴나스」, 70.

23) 김광채, 「어거스틴 조직신학」(부천: 마르투스, 2017), 15.

24) Wilhelm Geerlings, 「교부 어거스틴」, 권진호 옮김(서울: CLC, 2013), 60.

있다고 말한다.²⁵⁾ 그리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나는 알기 위해 믿고자 하며, 믿기 위해 알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먼저 신앙의 우선순위를 강조하고 그러나 신앙은 이성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초월적 신앙에 의해 가능하지만 이성을 통해 더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철학이 사람에게 지혜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 한 철학은 좋은 점을 갖고 있다고 인정한다.²⁶⁾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 철학을 사용하여 기독교교리를 설명하였다. 안셀무스의 ‘나는 믿기 위해 알려하지 않고 알기 위해 믿는다’는 표현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을 매우 잘 표현해주는 것이다.²⁷⁾ 이 말은 신앙이 이성에 선행한다는 의미이다. 신앙을 전제로 이성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로티누스(Plotinus, 205-270)가 일자(一者)와 다양한 만물의 원리 즉 누우스(nous)로 종합하고자 한 철학적 시도를 통해 기독교를 이성적으로 표현할 수단을 발견했다.²⁸⁾ 그는 모든 고대철학자들 가운데서 플라톤주의자들이 기독교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다.²⁹⁾ 아우구스티누스 이후 서구의 사상가들은 이성을 통해 어떻게 초월적인 존재에 도달하는지 지속적인 논쟁을 해왔고, 교부들과 스콜라학자들은 한결같이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주장하게 됐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러한 신앙과 이성의 합일에 의한 조화는 인간에게 부여한 문화적 사명을 잘 설명할 수 있기에 안셀무스, 루터, 칼빈 등에 의해 지속적인 지지를 받았다.

25) 신재식, 「신앙과 이성 사이에서 아우구스티누스 & 아퀴나스」, 90.

26) Wilhelm Geerlings, 「교부 어거스틴」, 148.

27) 오창희, “신앙과 이성,” 45.

28) 이나가키 노슈케, 「신앙과 이성」, 박영도 옮김 (서울: 서광사, 1980), 79-99. 신플라톤주의의 창시자라 일컬어지는 플로티누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진정한 스승이었다. 신플라톤주의의 의의는 신과 세계의 긴밀한 연결과 결합이다. 전광식, 「신플라톤주의의 역사」 (서울: 서광사, 2013), 14.

29) 신재식, 「신앙과 이성 사이에서 아우구스티누스 & 아퀴나스」, 76.

2. 토마스 아퀴나스

아우구스티누스 이후 눈 여겨 볼만한 대표적인 학자는 아퀴나스이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방법론을 수용하여 기독교사상을 체계적으로 종합하는데 성공했다.³⁰⁾ 아우구스티누스 이후 800여년이 지나고 아퀴나스는 종교와 철학의 조화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였다. 아퀴나스는 신앙과 이성 모두가 동등한 자격을 지닌 진리에 이르는 길로 제시한다. 이성은 자연의 빛에 의해, 신앙은 은총의 빛에 의해 성립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계시는 이성을 전제로 하며 자연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한다고 본다.³¹⁾ 아퀴나스는 인간의 이성은 타락하지 않았으므로 계시가 없이도 이성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입장은 기독교 신앙에 문제점을 남겨 놓게 된다. 이성에 ‘자율성’(autonomy)과 ‘자기 충족성’(self-sufficiency)을 부여하여 이성절대주의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앙이 이성에 앞선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알기 위해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아퀴나스는 ‘믿기 위해 이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신학과 철학을 분리하면서 신앙과 이성을 구분했다. 그러나 신앙과 이성은 구별되지만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파악했다. ‘믿기 위해 이해한다’고 말한 것은 이성을 통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합리적 성향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³²⁾ 즉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앙을 전제로 하는 이성’으로 신비주의적 특징을 갖고 있고, 아퀴나스는 ‘이성을 전제로 하는 신앙’으로 합리주의적 특징을 가진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³³⁾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30) James A. Weisheipl, 「토마스 아퀴나스 수사: 생애, 작품, 사상」, 이재룡 옮김 (서울: 성바오로출판사, 2011), 405-46을 참조할 것.

31) 길희성, 「신앙과 이성 사이에서」, 100.

32) 신재식, 「신앙과 이성 사이에서 아우구스티누스 & 아퀴나스」, 145-6.

33) 성공회의 여성 영성가인 이블린 언더힐(Evelyn Underhill, 1875-1941)은 아우구스

고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는 이성을 계시보다 낮은 개념으로 보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전통에 서서 아우구스티누스 경우보다는 이성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러나 아퀴나스는 모든 사람이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다. 우선 인간은 정신이 유한하며 오류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철학적인 증명을 다루는 일에 연구할 시간도 없기에, 그런 이유로 우선 인간은 신의 존재를 믿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아퀴나스는 신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신의 권위나 계시라고 강조하고 있다. 인간 이성의 역할은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성적인 추론 작업은 신에 대한 신앙에 이를 수는 없다 치더라도 신에 대한 신앙의 근거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아퀴나스는 종교적 지식과 이성적 지식은 다른 것일 수 있겠지만 신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성을 조화시키는 것은 초자연적 신앙, 즉 '진리는 하나이기에 학문의 진리와 신앙의 진리는 일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신앙을 통해 계시된 진리가 받아들여지기 위한 이성의 역할은 무엇일까? 김평만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아퀴나스는 신앙이란 믿는 것에 대해서 이성이 지적 동의를 하는 것이다.”³⁴⁾ 그에게 신앙과 이성은 계시와 합리적 인식을 통해 신학과 철학의 영역에서 각각 하나님을 인식하는 길이 열려있다. 계시된 진리에 대해 수용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이성의 역할이다. 이성이 신앙의 빛에 의해 조명될 때 이성은 초자연적 이성으로 정화되고 바뀌어 간다. 그러나 이성이 수동적이 되어간다고 해도 이성의 주체적인 영역이 없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티누스가 후기 신비주의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언급한다. Josef Pieper, 「중세 스콜라철학」, 김진태 옮김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5), 66.

34) 김평만, “그리스도교 삶의 원천으로서 영성과 이성-신앙의 상호관계,” 『가톨릭철학』 10 (2008): 107.

성이 이해를 추구해 가는 사유의 영역은 늘 상존한다. 신앙의 빛으로 조명된 이성을 가지고 신앙의 진리를 사유할 때만이 신앙에 대한 학문인 신학이 왜곡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즉 신앙의 빛이 이성을 조명할 때 제시된 진리에 대한 이해의 추구는 가능하다. 무분별한 이성은 해석하고 그것을 수용하거나 배척하는 것에 대한 식별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 신앙의 빛의 도움으로 정화된 이성만이 제시된 진리를 통찰하고 식별할 수 있다고 본다. 아퀴나스는 믿는다는 행위의 직접적인 주체는 지성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아퀴나스는 믿는다는 행위 구조를 아우구스티누스가 언급한 ‘확실한 승인과 더불어 숙고한다’를 들어 설명한다. ‘숙고한다’는 말은 여기저기 시선을 움직이면서 탐구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신앙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승인’이라는 말은 지성의 작용으로 신앙이 갖는 확실성을 의미한다. 이는 확실하면서 불확실한 것이 신앙이라는 의미로서 신앙과 이성의 긴장관계를 주시한 것이다.³⁵⁾ 계시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진리이고 이성은 아래로부터 주어지는 진리이기에 신학과 철학은 별개의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퀴나스는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주장하고 있다. 신앙과 이성, 신학과 철학은 서로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성으로 도달 할 수 없는 영역은 계시가 보충하여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신앙과 이성의 모순이 아닌 조화와 일치 추구를 하려 했고, 이런 입장은 스콜라 철학 전반에 걸쳐 지켜지고 있다.³⁶⁾

세계의 모든 사건들은 이성을 통해 관찰되고 분석되어야 하는 실재들이지만, 그 과정에 신앙이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아퀴나스는 신앙주의나 이성주의 같은 극단주의를 배격하고 이성은 신앙과 대립되지 않는다는 것

35) 강학순, “신앙과 이성,” 141.

36) Ibid., 143. 아퀴나스는 진리를 세 가지로 이해한다. 1) 신학에 의해서만 알려지는 고유한 진리 2) 철학에만 있는 고유한 진리 3) 철학과 신학에 있는 공통된 진리이다. Frederick C. Copleston, 「중세철학사」, 박영도 옮김 (서울: 서광사, 1987), 403-10.

을 말한다. 신앙은 이성의 자율성과 충족성을 제한하거나 부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계의 역사와 사건들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해야만 이해될 수 있다. 인간 이성은 역사 가운데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입하는 것이다.³⁷⁾ 아퀴나스는 신학과 철학을 자율적인 학문으로 생각하는가? 아퀴나스는 신학의 부족함을 도움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용을 보다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철학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가르친다. 그는 신학 안에서 철학을 세 분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첫째, 신앙이 전제하고 있는 진리들을 증명하는 데 철학은 매우 유용하다. 신앙의 진리를 이성이 경험에 의해서 철학으로 입증할 수 있다. 둘째, 자연적 실례들은 신앙의 진리들을 조명하는 데 유익하다. 철학을 활용하여 신앙의 진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다. 신앙의 진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닌 철학의 이론을 사용하여 진리를 설명하는 차원이다.³⁸⁾ 셋째, 신앙의 진리들을 거스르는 공격들과의 논쟁에 유익하다. 이와 같이 아퀴나스는 신학과 철학이 각각 고유의 방법을 지닌 자율적 학문임을 인정하면서도 둘 간의 위계질서를 분명히 하고 신앙과 이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한다. 그러나 아퀴나스는 어느 신학자나 철학자보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이성의 역할을 강조하였다.³⁹⁾ 신학은 자신의 가르침을 보다 명백히 하기 위해서 철학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신앙과 이성, 신학과 철학에 관한 아퀴나스의 결론이다. 그의 입장은 신학과의 관계에서 철학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이다.⁴⁰⁾

신앙의 초월성과 이성의 자율성은 양립 가능한 것인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성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 이성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37) 이재룡, “회칙 ‘신앙과 이성’의 역사적 의미,” 15.

38) 이규성, “칼 라너 신학에서의 철학의 역할,” 『가톨릭철학』 12 (2009): 278.

39) 이재룡, “회칙 ‘신앙과 이성’의 역사적 의미,” 23.

40) 신창석,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앙과 이성,” 75.

신앙을 허무는 것이 맞는 것인가? 대개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 신앙 노선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이성에 대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는 어디서부터 연유한 것인가? 신앙 안에서의 이성의 역할은 무엇인가? 신학과 철학의 관계에 대해 아퀴나스는 「신학대전」 서두에서 인간 이성으로 탐구되는 철학적 여러 학문 분야 이외에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이뤄지는 가르침을 인정하고 있다.⁴¹⁾ 철학적 탐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적 입장에서의 노력을 취한 것이다.⁴²⁾ 요약하면 아퀴나스는 신앙과 이성을 구분하면서도 이 양자가 일체라는 신념이 깔려있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퀴나스는 신앙과 이성의 구별과 통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이성의 능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문제-신의 존재, 둘째, 철학과 계시의 양측을 포함하는 문제-창조, 셋째, 계시에만 속하는 문제-삼위일체나 구원이다.⁴³⁾

지금까지 신앙과 이성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의 입장을 살펴해보았다. 이것을 좀 더 쉽게 구분하기 위해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신앙과 이성	인식방향	신학과 철학	사상배경
아우구스티누스	이성에 우선하는 신앙	위로부터의 인식	신학으로 소급	플라톤주의
아퀴나스	이성을 전제로 한 신앙	아래로부터의 인식	신학과 철학 구분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신학은 신앙의 내용인 계시를 비판적으로 해명하는 작업을 한다. 철학은 이성을 통해 인간의 궁극적 이유와 목표를 추구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신학과 철학은 양자 간 긴밀한 협력을 전제로 인간 존재의 풍부한 결실을

41) Thomas Aquinas, 「신학대전」, 정의채 옮김 (서울: 성바오로딸수도회, 2013), 30.

42)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이성은 신앙보다, 자연은 은총보다, 철학은 신학보다, 국가는 교회보다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43) 이나가키 노슈케, 「신앙과 이성」, 박영도 옮김 (서울: 서광사, 1980), 133-5.

드러내야 한다고 본다.

IV. 나가는 글: 신앙과 이성에 대한 전망

연구자의 목표는 신앙과 이성의 긴장과 조화로운 관계를 통해 하나님
의 진리를 알고 신앙을 발견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앙
과 이성이 분리된 시대에도 신앙과 이성은 여전히 우리 안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성은 우리가 맹목적인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신앙은 이성의 활동에 풍요로운 의미와 맛을 부여한다. 신앙과
이성은 원래부터 인간의 문화와 삶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두 요소였다.
새는 날기 위해 두 날개가 필요하다. 진리를 향해 우리가 날 수 있었던 것
은 신앙과 이성이라는 두 날개가 있기 때문이다.

자연적인 이성의 빛만을 지나치게 절대화하는 오류가 이성주의, 합리
주의이다. 또한, 신적 은총으로 이성이 정화되어 계시된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는 이성의 가능성을 불신하는 것이 허무주의로 흐르게 한다. 이러
한 양극단으로는 진리를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⁴⁴⁾ 그러므로 어떻게
신앙의 본질을 손상하지 않고 철학을 신학으로 도입하느냐 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성을 기반으로 한 철학은 언제나 오류가능성이 있
고, 비판되고 수정될 여지가 있음을 전제한다. 그러기에 기독교적 이성을
회복하여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적 가치관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
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지만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시대적 상황은 항상 가변하기 때문에 기독교적 삶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한국의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교회들이 혹시 기독교 지성,
이성을 홀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회가 기독교

44) 김평만, “그리스도교 삶의 원천으로서 영성과 이성-신앙의 상호관계,” 115.

교적 지성을 계속 무시한다면 불건전한 신앙의 패턴이 교회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교회 역사에 계속 되어온 악성적인 이원론적인 신앙의 극복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⁴⁵⁾ 연구자는 이성을 동반한 신앙이 죽은 믿음이 아닌 역동성을 드러내는 성숙의 단계로 갈 것이라고 본다. 신앙적 이성을 통해 잘못된 신앙, 광신이나 맹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지속적으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신천지, JMS, 구원파, 통일교 등 이단 및 사이비 거짓 종교로부터 참된 신앙을 분별하게 하는 것도 기독교적 이성이다. 결국은 신앙과 이성의 긴장과 조화로운 관계가 요청된다.

연구자는 신앙은 이성의 결과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 작업의 전제로 작용한다고 본다. 신앙과 이성에서 플랜팅가(Alvin Plantinga), 올스턴(William Payne Alston, 1921-2009)과 함께 기독교 인식론을 발전시키고 확장한 미국의 기독교철학자인 월터스토프(Nicholas Walterstorff)는 ‘종교의 한계 내에서의 이성’이라는 표현을 하며 이성에 대한 신앙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러한 표현은 신앙과 이성에 대한 입장을 매우 잘 표현해 주고 있다고 본다.⁴⁶⁾ 기독교인에게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인간 문제의 궁극적 해답이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인간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대립점이 되고, 신앙과 이성 사이의 연결고리를 부수는 걸림돌이다. 신성과 인성의 결합인 육화(incarnate)의 신비스러운 사건은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되는 진리는 이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진리들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신앙과 이성이라는 두 가지 인식 방식은 완벽한 진리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과학자들이 신뢰하며 자연적 질서의 합리성을 보장하시는 분과 예수 그리

45) 강학순, “신앙과 이성,” 148.

46) Nicholas Wolterstorff, 「종교의 한계 내에서의 이성」, 문석호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1)을 참조할 것.

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동일한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인간은 진리를 탐구하며 구원을 갈망한다. 계시를 신앙 안에서 이해하려는 신학은 이성을 통해 발전되어 온 철학의 유산과 연결되어야 한다. 신학과 철학 사이의 관계가 순환적이 될 때 진리는 완전히 이해되어 질 수 있다. 삼위일체의 신비와 인류구원의 보편적 의미를 선포하는 신학이 철학의 도움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연구자는 자연적인 이성이 아닌 신앙의 빛으로 조명된 이성은 올바른 이해를 통해 계시된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본다. 기독교인은 이성과 신앙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최고의 삶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철학의 특징은 이성만으로는 알 수 없을 진리들이 신앙을 통해 제시된다는 것과 이성으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교만함과 자만심을 정화시키는 신앙의 역할이다. 신앙과 이성이 서로를 대적하고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 가운데 협력한다면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더 깊어지게 되고 강해진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신학의 목표는 창조, 타락, 육화, 십자가, 구속, 죽음, 부활, 승천, 성령, 재림에 관한 계시를 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여 전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계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대한 면밀한 주석 작업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리의 절대성을 현시대의 문화에 반영하는 화해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신학자와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철학적 함의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연구해야 한다. 철학은 신앙을 공유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초석이 된다는 사실이다. 신앙과 이성, 신학과 철학의 조화와 협력은 인류의 진보에 공헌을 해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모든 것이 변화하여 최첨단 사회 발전과 수준 높은 문화적 산물을 만드는 지금도 한국교회 상당 부분은 무모한 신비주

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신비주의적 기복 신앙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신앙과 신학을 불건전하게 만들고 있는 듯하다. 이방 종교와 비슷한 잘못된 기복 교리를 정통 기독교의 진리인양 설파하는 흑세무민(惑世誣民) 세력들은 사그라질 줄 모르고 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경과 기독교 전체를 인간이 가진 이성적인 능력으로만 모두 해석할 수도, 운용할 수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 세우신 이 땅의 기독교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성적인 능력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도 깊이 깨달아야 한다. 맹목적이고 기복적인 믿음 만능주의는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이단적인 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연구자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회복된 이성과 신앙의 조화는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 존재의 풍부한 삶을 살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참고자료

1. 단행본

- 길희성. 「신앙과 이성 사이에서」. 서울: 세창출판사, 2016.
- 김광채. 「어거스틴 조직신학」. 부천: 마르투스, 2017.
- 김학중. 「어거스틴: 신학을 집대성한 교부철학의 성자」. 서울: 넥서스CROSS, 2011.
- 박주영. 「중세와 토마스 아퀴나스」. 서울: 살림출판사, 2015.
- 에반스 스티븐, 메니스 잭커리. 「종교철학」. 정승태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6.
- 신재식. 「신앙과 이성 사이에서: 아우구스티누스 & 아퀴나스」. 서울: 김영사, 2017.
- 전광식. 「신플라톤주의의 역사」. 서울: 서광사, 2013.
- 정의채. 「중세철학사」. 서울: 가톨릭출판사, 2019.
- 최현근. 「신앙과 이성: 신학과 철학, 2000년의 갈등과 조화의 역사」. 서울: 쿰란출판사, 2007.
- 한국키에르케고어학회 편. 「키에르케고어에게 배운다」.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5.
- Aquinas, Thomas. 「신학대전」. 정의채 옮김. 서울: 성바오로딸수도회, 2013.
- Bonsor, Jack A. 「이성과 신앙」. 이태하 옮김.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9.
- Geerlings, Wilhelm. 「교부 어거스틴」. 권진호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3.
- Pieper, Josef. 「중세 스콜라철학」. 김진태 옮김.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5.
- Weisheipl, James A. 「토마스 아퀴나스 수사: 생애, 작품, 사상」. 이재룡 옮김. 서울: 성바오로출판사, 2011.

Wolterstorff, Nicholas, 「종교의 한계 내에서의 이성」, 문석호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1.

2. 정기간행물

강학순. “신앙과 이성.” 「신학지평」 12집 (2000): 134-48.

김평만. “그리스도교 삶의 원천으로서 영성과 이성-신앙의 상호관계.” 「가톨릭철학」 10 (2008): 107-15.

서병창. “신앙에 대한 이성의 역할: 토마스 아퀴나스를 중심으로.” 「가톨릭철학」 27 (2016): 167.

신창석.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앙과 이성.” 「가톨릭철학」 2 (2000): 56.

오창희. “신앙과 이성.” 「신학지평」 5집 (1997): 43-8.

이규성. “칼 라너 신학에서의 철학의 역할.” 「가톨릭철학」 12 (2009): 278.

이재룡. “회칙 ‘신앙과 이성’의 역사적 의미.” 「가톨릭철학」 2 (2000): 20.

임병덕.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의 개념.” 「도덕교육연구」 9 (1997): 130-7.